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연경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석사

최승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Initial Audit Engage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ing-Shuo Yan^a, Seung-Uk Choi^b

^a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b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1, Revised 16 September 2021, Accepted 21 September 2021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uditor change on client firm's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accruals between the two firms. Additionally, the study uses earnings-stock return relationship as another proxy of accounting comparability.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initial audit years and the other years with respect to the client firm's accounting comparability. Moreover, current study tests how changes in auditor size or industry expertise before and after the switch of auditors affect the accounting comparability.

Findings -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mparability is lower in the year of auditor change than in the other years. Furthermore, this lower level of comparability is derived by the observations that switch their auditors from non-Big4 to non-Big4 or from non-specialist to non-specialis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hen accounting comparability is measured by different prox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s related with auditor selection.

Keywords: Auditor Change, Big4 Audito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dustry Specialist Auditor

JEL Classifications: M41, M42, M48

I. 서론

본 연구는 감사인의 교체가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비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과 체계적으로 상이한지 조사한다. 또한 감사인의 규모나 산업전문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객기업의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신저자는 학위논문 지도교수입니다. 학위논문 심사위원이신 경희대학교 정형록 교수님과 황문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수정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께도 감사드립니다.

^a First Author, E-mail: yanjingshuo@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suchoi@khu.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개념체계에서는 그 중 하나로 비교가능성을 제시한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을 유사한 이익으로 기록하고 상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익을 보고하는 것을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계처리로 본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9). 회계처리는 발생주의를 전제하므로 회계선택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식하게 된다(Basu, 1997). 회계처리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재량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최승욱, 2018), 특히 재무제표는 기업과 감사인 간 협상의 결과물로 선행연구는 감사인의 특성이 고객기업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Francis et al., 2014).¹⁾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비교체연도와 체계적으로 다른지와 감사인 교체과정에서 감사인 규모나 산업전문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영향을 받는지 조사한다.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 이들은 대체로 감사품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선행연구는 고품질 감사인으로서의 교체가 회계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고품질 감사인은 교육훈련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DeAngelo, 1981).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BigN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서비스를 받은 고객기업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도 높다고 보고한다(Becker et al., 1998; 나종길과 최관, 2003). 감사인 교체 관련 연구는 이러한 고품질 감사인으로서의 교체가 교체연도의 감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DeFond and Subramanyam, 1998). 감사인의 또 다른 특성으로 선행연구는 산업전문성이 높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고객기업이 그렇지 않은 감사인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낮고 이익반응계수도 높다고 발견하고 있다(e.g. Balsam et al., 2003). 또한 많지는 않으나 몇몇 연구는 이러한 감사인 산업전문성을 감사인 교체와 연관지어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Romanus et al. (2008)은 비전문가에서 산업전문가로의 감사인 교체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제작성 가능성을 높여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감사인 교체와 고객기업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탐색한다. 비교가능성은 기업간 횡단면적 비교가능성과 기업 내에서의 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감사인이 교체되는 연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다를 가능성은 시계열적 비교가능성 및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적 측면에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최승욱, 2017), 감사인 교체로 인해 시계열적 지속성이 감소하면 해당연도의 비교가능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즉, 감사인은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으며 이는 감사업무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영된다(Francis et al., 2014; Li et al., 2017). 감사인이 교체된다면 전임감사인과 신입감사인의 차이에 근거하여 교체연도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은 비교체연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횡단면적인 비교가능성 관점을 살펴보면, 감사인이 변경된 첫 해에는 신입감사인의 업무 스타일이 고객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동종 업계에 속한 타기업과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즉, 감사인이 고객기업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또한 감사수요 측면에서도 선행연구는 계속감사기간의 초기에는 고객기업의 재량적 이익조정 경향이 강함을 발견하고 있다(DeFond and Subramanyam, 1998). 의도적으로 조정된 회계이익은 타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감사인이 교체되는 연도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또한 감사인 교체시 감사인 규모의 변경이나 산업전문성의 변경이 교체연도의 고객기업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우선, 진술한 예상과 같이 감사인이 변경된 첫 해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부족한) Big4(non-Big4) 감사인으로서의 교체는 이러한 경향을 줄일(높일) 것이다. 다음으로, 감사인 규모뿐 아니라 산업전문성도 고객기업의 회계정보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는 특정 산업에서 감사전문성을 보유한 감사

1) Francis et al. (2014)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의 적용에 존재하는 재량의 차이를 발생액의 차이로 인식하여 동일한 대형감사법인으로서부터 감사를 받은 고객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이 존재하며 이들 전문감사인은 비전문감사인에 비해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Balsam et al., 2003; Krishnan, 2003; Francis et al., 2005). 산업전문감사인은 산업 내 다양한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 제공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감사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비전문감사인에 비해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초도감사시에 신규감사인의 고객기업에 대한 이해와 고객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보고되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다면, 이러한 경향은 산업전문감사인으로서의 교체시 증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실증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을 대응하기 위해 교체연도의 발생액 비교가능성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발생액의 차이로 발생액 비교가능성을 대응하여(Francis et al., 2014) 감사인 교체연도와 비교제연도의 비교가능성을 비교하고, 교체연도에 감사인 규모나 산업전문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교체가 그렇지 않은 교체에 비해 발생액 비교가능성이 상이한지 조사한다. 선행연구는 또한 주가와 이익의 관계를 이용하여 회계이익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고 있으나(De Franco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비교가능성의 대응치로 발생액의 차이를 주 추정치로 이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의 유출입에 있어서는 고객기업이 이를 회계정보로 전환하는데 기업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발생액 정보를 회계정보로 인식하는 데에는 기업마다 회계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감사인의 측면에서도 선행연구는 감사인마다 고객기업의 발생액을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본다(Francis et al., 2014). 따라서 기업 간 발생액 차이로 측정된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활용한다. 실증조사 측면에서 이와 같은 추정치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가-이익의 관계로 비교가능성을 추정하는 방식은 과거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De Franco et al., 2011). 즉, 이 방법은 과거 4개연도 분기별 이익과 주가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감사인 교체연도의 신규선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수준을 추정한다. 이는 기계적으로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본 연구는 Francis et al. (2014)의 발생액 비교가능성을 주로 이용하며 보완적으로 De Franco et al. (2011)의 방법을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13,268개 상장기업-연도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은 예상대로 비교제연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이러한 낮은 비교가능성이 어느 표본에서 유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사인 규모 변동을 구분한 결과, non-Big4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Big4에서 Big4 감사인으로서의 교체에서는 비교가능성에 있어 감사인 비교제연도와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산업전문성 여부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비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변경하는 경우에 비교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전문가 사이의 교체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품질 감사인 사이의 교체보다는 저품질 감사인 사이의 교체가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러 다른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사용한 결과에서 일관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무적 공헌을 한다. 첫째, 국내의 선행연구는 감사인 규모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DeAngelo, 1981; Becker et al., 1998; Lennox, 1999; 나종길과 최관, 2003; Balsam et al., 2003; Krishnan, 2003; Francis et al., 2005). 이와 관련되어 다수의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을 이용한 회계정보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 둘째,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감사인 교체가 점차 빈번해지는 최근의 제도적 변화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6년 연속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으로 220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0개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금융감독원, 2019).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도입은 자본시장 및 감사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비교가능성이 빈번한 감사인 교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임감사인과 신규감사인 간 업무능력과 감사스타일 등의 요인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 체계적인 차이를 야기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교체연도에 고객기업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감소하더라도 그 효과가 고품질 감사인 간

교체에서는 덜 나타난다는 결과는 규제기관과 기업의 실무담당자에게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대용치를 이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주가-이익 모형의 회귀분석으로 측정된 비교가능성 대용치가 과거연도의 자료를 이용해야만 추정이 되는 반면 발생액을 이용하여 추정된 비교가능성은 당기의 발생액 자료만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감사인 교체연도와 같이 회계정보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표본을 이용한 조사에서는 향후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본 것은 초도감사시의 비교가능성으로 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객기업의 비교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통해서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계속감사기간과 고객기업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실증조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은 선행연구와 가설을 설정한다. 3장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표본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연구의 결론과 공헌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1.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상의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의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의 다른 기간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을 때 더욱 유용하다. 즉, 비교가능성은 동일 시점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 간 재무정보를 비교하거나 및 동일 기업 내에서 두개 이상의 기간별 재무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9).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측정치를 주가와 이익의 관계를 통해 제시한 De Franco et al. (2011)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가수익률을 경제적인 사건의 대용치로 보고 이를 기업의 이익과 회귀분석하여 재무제표의 유사성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고 재무분석가 추종수가 증가하며, 이들의 낙관적 예측 편이가 완화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수준의 증가가 외부이용자들이 정보획득비용을 줄이고 정보비대칭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Kim et al. (2013)은 비교가능성과 신용위험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채권자 입장에서 정보처리 비용이 낮아져 신용위험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Kim et al. (2016)은 기업이 비교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Sohn (2016)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증가가 발생액을 통해 이익조정은 줄이지만 오히려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감사인의 관점에서 비교가능성을 조사한 연구는 Francis et al. (2014)이 있다. 동 연구는 동일한 Big4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서비스를 받은 고객기업의 재무제표가 상이한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를 규모가 큰 감사법인인 내부의 교육과 훈련 및 감사스타일에 있어 저마다의 원칙과 지침이 있어 이들로부터 감사받은 고객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해진다고 해석하였다.

2. 감사인 교체 관련 선행연구

DeAngelo (1981)는 감사인이 고객기업 회계자료에 내포된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확률과 그러한 위반사항을 보고하는 확률의 결합으로 감사품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객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경은 해당 고객기업에 대해 최초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이므로, 선행연구는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우선, 감사인 교체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ye (1991)는 감사인 교체를 경영자와

감사인 사이에 존재하는 회계처리에 관한 상이한 견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본다. 경영자 측면에서는 재량적으로 상향 조정된 회계이익을 통해 외부 투자자와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감사인은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감사위험을 줄이고 잠재적 소송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동 연구는 이러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견불일치가 감사인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감사인 교체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 Schwartz and Menon (1985), Dhaliwal et al. (1993)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나 부실기업일수록 재무시스템이 안정된 회사나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비해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고객기업은 재무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본금을 안정하게 조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감사인 교체 이후 회계정보의 품질을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DeFond and Subramanyam (1998)은 감사인 교체연도에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Romanus et al. (2008)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감사인 교체 후의 감사품질과 연관하여 조사하였다. 동 연구는 산업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의 교체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제작성 가능성을 줄이나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의 교체는 제작성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를 산업전문가가 고객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회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3. 가설 설정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기업의 과거 거래상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과 유사한 경제적 사건이 당기에 발생했을 때 이를 상호 유사한 수준의 회계정보로 전환하는 경우 높아진다. 또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과 유사한 경제적 사건 발생시 이를 서로 유사한 수준의 회계정보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기업의 시계열적, 횡단면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사인 교체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조사한다. 이 둘 사이의 체계적 관계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이때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인이 교체된다면 전임감사인과 선임감사인의 차이에 근거하여 교체연도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은 비교체연도와 비교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최승욱, 2017), 감사인 교체로 인해 시계열적 지속성이 감소하면 해당연도의 비교가능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선행연구는 감사인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므로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는 고객기업의 비교가능성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다(Francis et al., 2014). 또한 Li et al. (2017)은 특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고객기업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인이 신규 감사하는 새로운 고객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감사인은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으며 이는 감사업무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감사인이 교체되면 기업 내 시계열적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둘째, 기업간 횡단면적 비교가능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회계선택에는 재량이 존재하며 따라서 선행연구는 감사기간이 짧을 때 고객기업의 재량적 이익조정 경향이 높다고 본다(DeFond and Subramanyam, 1998; Chen et al., 2008). 의도적으로 조정된 회계이익은 타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감사인이 교체되는 연도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Chen et al. (2008)은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함을 발견하여 감사인의 잦은 교체가 회계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사인이 변경된 첫 해에는 선임감사인의 업무 스타일이 고객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 즉, 감사인이 고객기업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은 감사인 교체연도의 고객기업 회계정보와 동종 업계에 속한 타기업 회계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H1 :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수준은 비교체연도에 비해 더 낮다.

다음으로 감사인 교체에 따라 전임감사인과 신규로 선임된 감사인 사이에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감사인 규모는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감사인 규모와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연관될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체로 감사인 교체 관련 선행연구는 교체연도의 감사품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규모가 큰 감사인으로서의 변경이 회계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DeFond and Subramanyam, 1998). 또한 선행연구는 횡단면적인 비교를 통해 규모가 큰 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eAngelo (1981)는 BigN 감사인이 non-BigN 감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Lennox (1999)는 BigN 감사인이 non-BigN 감사인에 비해 명성과 평판을 유지하고 소송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Becker et al. (1998)은 Big6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서비스를 받은 고객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설 1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초도감사시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Big4 감사인의 고객기업에서 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이 아닌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조사하며, 비교가능성은 발생액의 수준 자체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계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하나, 발생액이 유의하게 높더라도 유사한 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동종업계 다기업들의 발생액 역시 유의하게 높다면 이것은 비교가능한 발생액으로 볼 수 있다(최승욱, 2018). 즉, 감사인 교체로 감사인의 규모가 증가한 표본이라도 반드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는 감사인 교체를 통해 고객기업이 감사의견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일부 선행연구는 non-Big4로의 교체가 호의적인 감사의견의 구매 및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회계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Davidson et al., 2006). 만약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면, 규모가 작은 감사인으로서의 교체는 교체연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상기한 논의는 감사인 교체 전후 감사인 규모의 차이가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H2 :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인 규모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감사인 규모뿐 아니라 산업전문성도 회계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는 특정 산업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감사인은 비전문감사인에 비해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Balsam et al., 2003; Krishnan, 2003; Francis et al., 2005).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감사인이 특정 산업에서 계약한 고객기업의 총자산이나 매출액을 이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고 이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추정치로 대용한다(O'Keefe et al., 1994; Balsam et al., 2003; Krishnan, 2003; Francis et al., 2005).

산업전문감사인은 산업 내 다양한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 제공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감사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산업전문감사인에 비해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초도감사시에는 신규감사인의 고객기업에 대한 이해와 고객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인이라면 충분히 비교가능성의 감소 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실증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3 :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III. 연구설계

1.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측정

본 연구에서 비교가능성은 선행연구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첫 번째 추정치는 기업 간 발생액 구조의 유사성을 이용한다. Francis et al. (2014)은 발생액의 차이가 공식되는 재무제표 간 비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다. 만약 두 기업이 회계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발생액 구조를 가질 것이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반면, 동질적 사건에 대해 유사한 발생액을 보고한다면, 발생액의 비교가능성은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원용하여 다음의 같은 산식을 통해 동일 연도-산업 내 기업 간 발생액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ACCRUAL_COMPM,N=(-1) \times |(M기업의 발생액 - N기업의 발생액)| \tag{1}$$

여기서, ACCRUAL_COMPM,N은 동일한 연도-산업 내 M기업과 N기업 간 발생액 차이의 절대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이다. 만약 두 기업의 발생액이 비교가능하다면 ACCRUAL_COMP는 더 큰 값을 가질 것이다. 동종업계에 여러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특정 기업 M과 매칭되는 N기업의 수에 따라 기업-쌍의 수는 여럿 존재할 것이다. Francis et al. (2014)은 기업-쌍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를 기업-연도별로 산출하기 위해 상위 4개의 평균값을 이용한다(De Franco et al., 2011). 또한 발생액 뿐 아니라 강건성을 위해 추가분석에서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를 이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측정한다. 이 측정치들의 변수명은 각각 COMP_ACC와 COMP_PMDA이다.

두 번째 비교가능성 추정치는 주가와 이익의 관계를 이용한 De Franco et al. (2011)의 방법을 원용한다. 다만, 이 추정치는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회계이익의 예상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 수준을 기계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ARN=\alpha_0+\alpha_1RET \tag{2}$$

위의 식(2)는 회귀모형으로 종속변수 EARN는 분기별 이익을 직전 분기말 총자산으로 나눈값이다. 독립변수 RET는 분기별 주가수익률이다. De Franco et al. (2011)은 기업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주가수익률로, 회계정보를 이익으로 각각 대응하여 경제적 사건이 회계정보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 16분기 분기별 이익과 주가자료를 회귀분석하여 회귀모형 상의 계수 α_0 과 α_1 을 추정하여 이를 이 기업의 회계시스템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아래의 식(3)과 같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 서로 다른 두 기업에 발생하였을 때, 각 기업의 회계시스템으로 추정된 기대 회계이익을 두 기업에 대해 산출하여 이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두 기업 간 비교가능성으로 추정하였다.

$$EARN_COMPM,N=(-1) \times |(M기업의 기대이익 - N기업의 기대이익)| \tag{3}$$

전술한 바와 같이 식(3)을 통해 추정된 비교가능성 대응치는 감사인 교체 전 16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 예상값을 추정하므로 당기 발생액 자료를 이용하는 COMP_ACC에 비해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기계적으로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이익 모형은 비교가능성 추정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는 이를 COMP_ACC와 비교하여 함께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위의 식(3)은 연도-산업별로 추정되는데 동종산업에 속한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추정되는 기업-쌍의 수는 증가한다. De Franco et al. (2011)은 이를 기업-연도별로 추정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해 산출된 산업-연도 내 기업-쌍 중 비교가능성 수준이 가장 높은 네 개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도 이를 이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추정한다(COMP_RET). De Franco et al. (2011) 또한 경제적 사건이 이익

에 반영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price-lead-earnings)을 모형에 전기주가수익률을 포함하여 조정하였다. 본 연구도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이와 같이 추정된 비교가능성(COMP_LAGRET)을 추가분석에서 이용한다.

2. 가설 검증 모형

본 연구의 가설 1은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비교체연도와 비교해 살펴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의 식(4)와 같다.

$$\text{COMP_ACC}(\text{COMP_RET}) = \beta_0 + \beta_1 \text{INITIAL} + \text{Controls} + \sum \text{IND} + \sum \text{Year} \quad (4)$$

(변수정의)

- 1) 종속변수: COMP_ACC= 기업 간 발생액 차이를 이용한 비교가능성 측정치;
COMP_RET= 주가-이익 모형을 이용한 비교가능성 측정치;
- 2) 관심변수: INITIAL= 감사인 교체연도이면 1, 아니면 0;
- 3) 통제변수:
 - 3-1) 규모와 복잡성: SIZE=기업 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 비중(재고자산과 매출채권/총자산);
INTANG=무형자산/총자산;
PM=당기순이익/매출액;
 - 3-2) 재무구조와 건전성: LEV=부채비율(부채/총자산);
CURR=유동자산/유동부채;
 - 3-3) 현금흐름과 성과: CF=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LAGROA=전기 총자산이익률(순이익/총자산);
LOSS=손실이면 1, 아니면 0;
 - 3-4) 성장성: SALEGRW=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STOCK=발행주식수가 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1, 아니면 0;
 - 3-5) 기타 : KOSDAQ=코스닥시장 이면 1, 아니면 0;
ΣIND=산업더미;
ΣYear=연도더미.

식(4)의 종속변수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대용치이다. 우선, COMP_ACC는 Francis et al. (2014)이 제시한 발생액 비교가능성 측정치를 기업-연도의 자료로 환산한 것이다. 또한 De Franco et al. (2011)의 방법에 따라 주가와 이익의 관계에서 추정된 비교가능성 대용치(COMP_RET)도 이용한다. 관심변수는 감사인 교체연도이면 1이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INITIAL 변수이다. 따라서 계수 β_1 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면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비교체연도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의 특성이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의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한다(Francis et al., 2014; Kim et al., 2016; 최승욱, 2018 등). 우선,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은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의 수와 복잡성과 관련이 있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 통제변수(SIZE, INVREC, INTANG, PM)를 포함한다. 즉, 기업의 규모(SIZE)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INVREC)을 통제한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재량이 증가하므로 INTANG을 통제한다. 또한 원가구조 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해 당기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매출액총이익률(PM)을 통제한다. 다음으로, 재무구조와 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LEV)과 유동비율(CURR)을 통제한다. 회계처리와 회계선택은 현금흐름이나 성과에 영향을 받으므로 영업현금흐름비율(CF)과 전기자산이익률(LAGROA), 손실보고 여부(LOSS)를 포함한다. 기업의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해 매출액증가율(SalesGRW)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는 유상증자 등의 자본조달 행위는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발행주식수 증가 여부(STOCK)를 포함한다. 또한 상장시장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여부를 포함한다(KOSDAQ). 마지막으로 연도와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Σ Year)와 산업더미(Σ IND)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 회귀분석상의 통계치는 기업수준에서의 클러스터링으로 조정된 값을 보고한다.

다음으로 가설 2에서는 감사인의 규모 변경에 따른 비교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의 식(5)와 같다.

$$\text{COMP_ACC}(\text{COMP_RET}) = \beta_0 + \beta_1 \text{BIG_to_BIG} + \beta_2 \text{NBIG_to_BIG} + \beta_3 \text{BIG_to_NBIG} + \beta_4 \text{NBIG_to_NBIG} + \text{Controls} + \Sigma \text{IND} + \Sigma \text{Year} \quad (5)$$

〈변수정의〉

감사인 규모 변경 측정치:

BIG_to_BIG=Big4 감사인에서 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NBIG_to_BIG=Non-Big4 감사인에서 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BIG_to_NBIG=Big4 감사인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NBIG_to_NBIG=Non-Big4 감사인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기타 변수의 정의는 식(4)와 같다.

식(5)에서 관심변수인 감사인 교체는 기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즉, 감사인 규모를 Big4와 non-Big4로 구분한다면, BIG_to_BIG 변수는 Big4 감사인에서 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를 의미한다. 나머지 세 개의 경우는 각각 Non-Big4 감사인에서 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NBIG_to_BIG), Big4 감사인에서 non-Big4로의 교체(BIG_to_NBIG), 그리고 Non-Big4 감사인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NBIG_to_NBIG)로 구분된다. 따라서 비교제연도는 상수항에 그 효과가 잡힐 것이다. 각각의 계수값이 양(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면 비교가능성의 증가(감소)를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는 식(4)와 같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변경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조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의 식(6)이다.

$$\text{COMP_ACC}(\text{COMP_RET}) = \beta_0 + \beta_1 \text{ISA_to_ISA} + \beta_2 \text{NISA_to_ISA} + \beta_3 \text{ISA_to_NISA} + \beta_4 \text{NISA_to_NISA} + \text{Controls} + \Sigma \text{IND} + \Sigma \text{Year} \quad (6)$$

〈변수정의〉

감사인 전문성 변경 측정치:

ISA_to_ISA=ISA 감사인에서 ISA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NISA_to_ISA=Non-ISA 감사인에서 ISA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ISA_to_NISA=ISA 감사인에서 Non-ISA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NISA_to_NISA=Non-ISA 감사인에서 Non-ISA 감사인으로의 교체이면 1, 아니면 0;

기타 변수의 정의는 식(4)와 같다.

위의 식(6)은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변경을 관심변수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술한 식(4), (5)와 유사하다. 관심변수는 ISA 감사인에서 ISA 감사인으로의 교체(ISA_to_ISA), Non-ISA 감사인에서 ISA 감사인으로의 교체(NISA_to_ISA), ISA 감사인에서 Non-ISA 감사인으로의 교체(ISA_to_NISA), Non-ISA 감사인에서 Non-ISA 감사인으로의 교체(NISA_to_NISA)이다. 전술한 식과 동일하게 감사인 비교제연도는 상수항에 그 효과가 잡힌다. 이때 감사인 산업전문성은 고객기업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장점유율로 대용하였으며, 산업-연도 내에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면 산업전문감사인으로 보았다(Balsam et al., 2003; Krishnan, 2003; Francis et al., 2005). 만약 $\beta_1 \sim \beta_4$ 의 계수 값이 양의

방향(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면 각 교체의 비교가능성이 감사인 비교체연도에 비해 높음(낮음)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는 식(4)와 동일하다.

3. 표본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이며, 다음의 선정기준을 통해 이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에 포함하였다.

- (1)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장기업;
- (2) 12월 결산법인;
- (3)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4) Kis-Value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5)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추정 가능한 기업.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연도는 총 13,268개이다. 한편,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두 번째 대응치로 De Franco et al.(2011)의 주가-이익 모형에서 산출한 추정치를 이용하는데, 이 모형은 과거 16분기의 연속되는 분기별 이익과 주가수익률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료가 모두 만족되는 표본의 수는 다소 감소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353 기업-연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생액을 이용한 비교가능성 회귀분석에서는 13,268개를, 주가-이익모형을 이용한 비교가능성 회귀분석에서는 10,353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한다.²⁾

구체적인 연도별 표본의 수는 <표 1>에 제시한다. 본 연구는 K-GAAP과 K-IFRS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후 표본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 시작연도인 2011년에는 1,538개의 기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86개의 기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Table 1. Yearly Distribution

Year	2011	2012	2013	2014
N of Observations	1,538	1,574	1,608	1,646
Year	2015	2016	2017	2018
N of Observations	1,673	1,705	1,738	1,786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절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먼저 <표 2>에는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비교가능성 측정치 변수인 COMP_ACC와 COMP_RET는 각각 평균이 -0.015, -0.008이다. 추가분석에서 이용한 성과대용 재무적 발생액의 차이 및 전기와 당기 주가수익률로 추정된 비교가능성 측정치인 COMP_PMDA와 COMP_LAGRET는 각각 평균이 -0.012, -0.010이다. 전체 표본 중 감사인이 교체된 표본(INITIAL)은 18.1%이다. 감사인 교체시 규모에 따라 구분한 관심변수(Big_to_Big, NBig_to_Big, Big_to_NBig, NBig_to_NBig)는 각각 평균이 0.050, 0.029, 0.045, 0.057이다. 이 네 변수 평균의 합은 0.181로 INITIAL과 같다. 상대적으로 NBig_to_NBig 교체의 경우가 많고

2)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이 두 비교가능성 측정치가 모두 산출되는 표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여도 연구 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였다.

NBig_to_Big 경우가 적은 것이 확인된다. 감사인 산업별 시장점유율에 따라 구분한 관심변수 (ISA_to_ISA, NISA_to_ISA, ISA_to_NISA, NISA_to_NISA)는 각각 평균이 0.010, 0.024, 0.031, 0.115이다. 이 구분에서도 감사인 규모에서와 유사하게 NISA_to_NISA 교체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비전문가의 비율이 전문가에 비해 적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의 평균값은 18.883, 중앙값은 18.650이다. 기업 영업활동의 복잡성 대응치인 INVREC와 INTANG의 평균은 0.263, 0.031이다. 또한 원가 구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이익률(PM)의 평균은 -0.025이다. 다음으로, 재무구조를 대응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한 변수로 부채비율(LEV)의 평균값은 0.391, 중앙값은 0.389이다. 유동비율(CURR)의 평균은 2.962이다. 기업 성과를 대응하는 현금흐름(CF), 전기성과(LAGROA), 손실여부(LOSS)의 평균값은 각각 0.043, 0.029, 0.271이다. 매출액성장률(SALEGRW)의 평균은 0.081이며 전기 대비 당기에 10% 이상의 주식을 발행 기업(STOCK)은 17.2%이다. 또한 표본기업의 60.6%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KOSDAQ)되어 있다. 이상의 값들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기술통계와 매우 유사하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1%	25 %	Median	75%	99%
COMP_ACC	-0.015	-0.254	-0.011	-0.004	-0.002	0.000
COMP_RET	-0.008	-0.066	-0.009	-0.005	-0.003	-0.001
COMP_PMDA	-0.012	-0.164	-0.010	-0.004	-0.002	0.000
COMP_LAGRET	-0.010	-0.072	-0.010	-0.006	-0.004	-0.001
INITIAL	0.181	0.000	0.000	0.000	0.000	1.000
BIG_to_BIG	0.050	0.000	0.000	0.000	0.000	1.000
NBIG_to_BIG	0.029	0.000	0.000	0.000	0.000	1.000
BIG_to_NBIG	0.045	0.000	0.000	0.000	0.000	1.000
NBIG_to_NBIG	0.057	0.000	0.000	0.000	0.000	1.000
ISA_to_ISA	0.010	0.000	0.000	0.000	0.000	1.000
NISA_to_ISA	0.024	0.000	0.000	0.000	0.000	1.000
ISA_to_NISA	0.031	0.000	0.000	0.000	0.000	1.000
NISA_to_NISA	0.115	0.000	0.000	0.000	0.000	1.000
SIZE	18.883	16.465	17.966	18.650	19.554	23.416
INVREC	0.263	0.000	0.141	0.246	0.365	0.729
INTANG	0.031	0.000	0.004	0.012	0.033	0.293
PM	-0.025	-2.358	-0.009	0.034	0.084	0.848
LEV	0.391	0.030	0.224	0.389	0.543	0.882
CURR	2.962	0.230	1.009	1.615	2.945	31.444
CF	0.043	-0.246	-0.002	0.043	0.091	0.286
LAGROA	0.029	-0.444	0.000	0.033	0.078	0.410
LOSS	0.271	0.000	0.000	0.000	1.000	1.000
SALEGRW	0.081	-0.678	-0.077	0.033	0.157	2.028
STOCK	0.172	0.000	0.000	0.000	0.000	1.000
KOSDAQ	0.606	0.000	0.000	1.000	1.000	1.000

Notes: 1. Descriptive statistics reported in the table used 10,353 observations for COMP_RET, COMP_LAGRET variables and 13,268 for the other variables.
 2. Refer to Section III for the variable definition.

다음으로 <표 3>은 각 변수 간 피어슨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네 가지 비교가능성의 측정치들은 상호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비교가능성을 추정하였음에도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관심변수인 INITIAL은 모든 비교가능성 추정치와 1%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최소한 단일변량관계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됨을 의미한다. 감사인 규모나 산업전문성의 변화와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교가능성 추정치에 무관하게 NBig_to_NBig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상관계수는 각각 -0.06, -0.12, -0.06, -0.13). 또한 산업전문성의 측면에서는 NISA_to_NISA과 비교가능성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05, -0.13, -0.05, -0.13으로 모두 유의 수준 1%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상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중소형감사법인 사이의 교체와 비전문가 사이의 교체가 비교가능성의 감소로 이어짐이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고객기업의 특성요인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통계적으로 엄격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통제변수와 비교가능성 측정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전기 총자산이익률(LAGROA)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반면, 부채비율(LEV)과 손실여부(LOSS), 주식발행(STOCK), 코스닥 상장여부(KOSDAQ)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규모가 크고 전기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고 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이거나 주식을 발행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각각 반대편의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상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 및 직관적인 이해와도 일관된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COMP_ACC	1.00																								
2 COMP_RET	0.31	1.00																							
3 COMP_PMDA	0.66	0.27	1.00																						
4 COMP_LAGRET	0.33	0.96	0.28	1.00																					
5 INITIAL	-0.05	-0.12	-0.05	-0.13	1.00																				
6 BIG_to_BIG	0.00	0.01	0.01	0.01	0.49	1.00																			
7 NBIG_to_BIG	-0.02	-0.06	-0.03	-0.06	0.37	0.00	1.00																		
8 BIG_to_NBIG	-0.01	-0.05	-0.01	-0.06	0.46	-0.05	-0.04	1.00																	
9 NBIG_to_NBIG	-0.06	-0.12	-0.06	-0.13	0.52	-0.06	-0.04	-0.05	1.00																
10 ISA_to_ISA	-0.01	0.00	-0.01	0.01	0.22	0.44	-0.02	-0.02	1.00																
11 NIS4_to_IS4	-0.01	-0.02	-0.01	-0.02	0.33	0.34	0.41	-0.03	-0.04	1.00															
12 IS4_to_NIS4	-0.01	-0.02	0.00	-0.02	0.38	0.32	-0.03	0.45	-0.04	-0.02	1.00														
13 NIS4_to_NIS4	-0.05	-0.13	-0.05	-0.13	0.77	0.11	0.27	0.33	0.68	-0.04	-0.06	-0.07	1.00												
14 SIZE	0.10	0.21	0.09	0.22	-0.10	0.10	-0.07	-0.08	-0.14	0.10	0.01	0.01	-0.16	1.00											
15 INVREC	0.01	0.11	0.03	0.11	0.01	-0.03	0.04	0.01	0.01	-0.05	0.00	-0.01	0.03	-0.15	1.00										
16 INVANG	-0.05	-0.16	-0.03	-0.15	0.01	0.00	0.01	0.01	0.00	0.01	0.00	0.00	0.01	-0.14	-0.04	1.00									
17 PM	0.27	0.26	0.18	0.26	-0.05	0.03	-0.03	-0.02	-0.06	0.02	0.00	0.01	-0.07	0.20	0.06	-0.12	1.00								
18 LEV	-0.12	-0.02	-0.06	-0.03	0.06	0.03	0.07	0.00	0.02	0.01	0.05	0.00	0.05	0.12	0.31	-0.02	-0.15	1.00							
19 CURR	0.03	-0.02	-0.01	-0.01	0.00	0.00	-0.03	0.03	0.00	0.00	-0.02	0.02	0.00	-0.13	-0.21	0.00	0.02	-0.53	1.00						
20 CF	0.14	0.19	0.12	0.20	-0.03	0.03	0.02	-0.02	-0.08	0.00	0.03	0.00	-0.05	0.11	-0.07	-0.01	0.39	-0.13	0.00	1.00					
21 LAGRO4	0.19	0.26	0.11	0.27	-0.06	0.02	0.01	-0.03	-0.09	0.01	0.01	0.00	-0.08	0.13	0.03	-0.11	0.42	-0.24	0.07	0.38	1.00				
22 LOSS	-0.18	-0.22	-0.09	-0.24	0.04	-0.02	0.01	-0.03	-0.09	-0.01	-0.01	-0.01	0.06	-0.16	-0.05	0.11	-0.54	0.23	-0.05	-0.41	-0.41	1.00			
23 SALEGRW	0.05	-0.06	-0.04	-0.06	0.03	0.01	0.04	0.00	0.02	0.00	0.02	0.00	0.03	-0.03	0.05	0.07	0.09	0.03	0.00	0.09	-0.03	-0.16	1.00		
24 STOCK	-0.11	-0.20	-0.14	-0.22	0.12	0.01	0.07	0.06	0.08	0.01	0.03	0.04	0.10	-0.15	-0.03	0.06	-0.19	0.05	0.02	-0.15	-0.12	0.15	0.10	1.00	
25 KOSDAQ	-0.01	-0.09	-0.03	-0.09	0.06	-0.06	0.05	0.06	0.06	-0.05	-0.01	0.01	0.09	-0.54	0.03	0.14	-0.07	-0.09	0.08	0.02	0.03	0.04	0.06	0.13	1.00

Notes: 1. Descriptive statistics reported in the table used 10,353 observations for COMP_RET, COMP_LAGRET variables and 13,268 for the other variables.
 2. Refer to Section III for the variable definition.
 3. Bold indicates significance at 1% or higher level.

2. 가설검증 결과

본 절에서는 각 가설을 검증한 실증결과를 보고한다. 우선, 가설 1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한다. 표의 모형 (1)은 COMP_ACC를, 모형 (2)는 COMP_RET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결과이다. 두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0.1673, 0.2531이다. 관심변수는 감사인이 교체된 연도를 의미하는 INITIAL이다. 이 변수는 두 모형에서 각각 계수값 -0.002, -0.002, t-값 -2.68, -6.28로 1% 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이는 감사인을 교체한 연도는 교체하지 않은 연도에 비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감사인 교체로 인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신규로 선임된 감사인과 전임 감사인은 저마다의 고유한 업무방식이 있고(Francis et al., 2014), 이러한 차이가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 매출액이익률, 전기성과는 두 모형에서 모두 비교가능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 반면, 주식발행여부는 음의 관계가 있다.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가능성과 감사인 규모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다. 표의 모형 (1)과 (2)는 전술한 표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비교가능성 측정치이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가 COMP_ACC일 때 관심변수 NBig_to_NBig는 계수값 -0.005로 1%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non-Big4 감사인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 교체될 경우 고객기업의 비교가능성이 가장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다른 형태로의 감사인 교체는 발생액 비교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더 큰 감사인으로서의 감사인 교체시에는 발생액 비교가능성이 감소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규모가 큰 감사인에서 작은 감사인으로서의 교체에서도 비교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즉, 전술한 표에서 발견한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non-Big4 감사인 사이의 교체에서 유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non-Big4 감사인으로만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Table 4.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f Client Firms on Initial Audit Engagement Years

Independent Variable	(1) Dep=COMP_ACC			(2) Dep=COMP_RET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Intercept</i>	-0.075	***	-6.89	-0.036	***	-5.51
<i>INITIAL</i>	-0.002	***	-2.68	-0.002	***	-6.28
<i>SIZE</i>	0.002	***	6.35	0.001	***	5.95
<i>INVREC</i>	-0.011	***	-3.68	0.004	***	3.11
<i>INTANG</i>	-0.003		-0.30	-0.010	**	-2.54
<i>PM</i>	0.021	***	7.04	0.004	***	4.53
<i>LEV</i>	-0.014	***	-4.86	0.001		0.66
<i>CURR</i>	0.000		-1.60	0.000		-0.63
<i>CF</i>	0.002		0.21	0.007	***	2.75
<i>LAGROA</i>	0.021	***	4.14	0.010	***	4.01
<i>LOSS</i>	-0.001		-1.17	-0.001	***	-3.50
<i>SALEGRW</i>	0.004	***	2.83	-0.002	***	-4.54
<i>STOCK</i>	-0.006	***	-5.81	-0.003	***	-9.06
<i>KOSDAQ</i>	0.001		1.44	0.000		0.49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673			0.2531	
N of obs.		13,268			10,353	

Notes: 1. ***, **, and * show significance levels at 1, 5, and 10%, respectively (two-tailed).

2. T-values are firm-level clustered.

3. Refer to Section III for the variable definition.

다음으로, <표 5>의 모형 (2)는 추가-이익모형에서 추정된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형 (1)과 유사하게 종속변수가 COMP_RET일 때에도 NBig_to_NBig는 계수값이 -0.003으로 1%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이는 non-Big4 감사인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의 변형시 비교가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형 (2)에서는 이 변수 뿐 아니라 NBig_to_Big, Big_to_NBig의 계수값도 각각 -0.003, -0.002로 유의하다. 그러나 Big_to_Big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추가-이익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COMP_RET 변수가 감사인 교체연도만의 발생액 차이를 이용한 COMP_ACC 변수에 비해 기계적으로 비교가능성 수준을 더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할 때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는 전술한 표와 다르지 않다. 즉,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재무건전성이 낮고 손실을 보고하거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의 수준이 낮다.

이상 <표 5>의 발견을 요약하면, 비교가능성 측정치에 무관하게 non-Big4 감사인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는 비교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 이는 non-Big4 감사인으로의 교체가 감사품질의 저하나 감사의견 구매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발견이다 (DeFond and Subramanyam, 1998; Davidson et al., 2006). 또한 유의하지 않은 Big_to_Big 변수는 Big4 감사인 사이의 감사인 교체는 감사인마다 상이한 업무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즉, 감사인 교체연도에 고객기업에 대한 이해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감사증거의 수집 및 업무 관련 지식의 습득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Big4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비교가능한 회계정보를 보고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5. The Effect of Change in Auditor Size on Client Firm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t Initial Audit Engagement Years

Independent Variable	(1) Dep=COMP_ACC			(2) Dep=COMP_RET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Intercept</i>	-0.074	***	-6.78	-0.035	***	-5.35
<i>BIG_to_BIG</i>	-0.001		-0.66	-0.001		-1.36
<i>NBIG_to_BIG</i>	-0.003		-1.16	-0.003	***	-3.34
<i>BIG_to_NBIG</i>	-0.001		-0.62	-0.002	***	-4.35
<i>NBIG_to_NBIG</i>	-0.005	***	-2.79	-0.003	***	-5.02
<i>SIZE</i>	0.002	***	6.11	0.001	***	5.64
<i>INVREC</i>	-0.011	***	-3.70	0.004	***	3.11
<i>INTANG</i>	-0.003		-0.34	-0.010	**	-2.57
<i>PM</i>	0.021	***	7.04	0.003	***	4.54
<i>LEV</i>	-0.014	***	-4.86	0.001		0.67
<i>CURR</i>	0.000		-1.63	0.000		-0.60
<i>CF</i>	0.001		0.18	0.006	***	2.71
<i>LAGROA</i>	0.020	***	4.11	0.010	***	3.97
<i>LOSS</i>	-0.001		-1.13	-0.001	***	-3.50
<i>SALEGRW</i>	0.004	***	2.86	-0.002	***	-4.50
<i>STOCK</i>	-0.006	***	-5.79	-0.003	***	-8.99
<i>KOSDAQ</i>	0.001		1.43	0.000		0.50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675			0.2542	
N of obs.		13,268			10,353	

Notes: 1. ***, **, and * show significance levels at 1, 5, and 10%, respectively (two-tailed).
 2. T-values are firm-level clustered.
 3. Refer to Section III for the variable definition.

다음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인을 산업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교체연도의 효과를 살펴본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에서 종속변수가 COMP_ACC 일 때 관심변수 NISA_to_NISA의 계수는 -0.002로 5% 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t -값=-2.04). 또한 모형 (2)에서 종속변수가 COMP_RET인 경우에도 NISA_to_NISA의 회귀계수는 -0.00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t -값=-6.13). 다만, 종속변수가 COMP_ACC 일 때에는 다른 산업전문성 변경의 표본은 유의하지 않으나 종속변수가 COMP_RET인 경우에는 NISA_to_ISA와 ISA_to_NISA의 계수값도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감사인 규모 변경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기타 통제변수들의 결과도 전술한 표와 매우 유사하다.

Table 6. The Effect of Change in Auditor Industry Expertise on Client Firm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t Initial Audit Engagement Years

Independent Variable	(1) Dep=COMP_ACC			(2) Dep=COMP_RET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Intercept</i>	-0.075	***	-6.88	-0.035	***	-5.41
<i>ISA_to_ISA</i>	-0.002		-0.66	0.000		0.21
<i>NISA_to_ISA</i>	-0.002		-1.15	-0.001	*	-1.93
<i>ISA_to_NISA</i>	-0.003		-1.26	-0.002	***	-2.61
<i>NISA_to_NISA</i>	-0.002	**	-2.04	-0.002	***	-6.13
<i>SIZE</i>	0.002	***	6.29	0.001	***	5.76
<i>INVREC</i>	-0.011	***	-3.68	0.004	***	3.12
<i>INTANG</i>	-0.003		-0.30	-0.010	***	-2.59
<i>PM</i>	0.021	***	7.04	0.003	***	4.52
<i>LEV</i>	-0.014	***	-4.86	0.001		0.67
<i>CURR</i>	0.000		-1.60	0.000		-0.61
<i>CF</i>	0.002		0.21	0.007	***	2.75
<i>LAGROA</i>	0.021	***	4.15	0.010	***	4.00
<i>LOSS</i>	-0.001		-1.17	-0.001	***	-3.52
<i>SALEGRW</i>	0.004	***	2.83	-0.002	***	-4.53
<i>STOCK</i>	-0.006	***	-5.81	-0.003	***	-9.05
<i>KOSDAQ</i>	0.001		1.44	0.000		0.48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671			0.2537	
N of obs.		13,268			10,353	

Notes: 1. ***, **, and * show significance levels at 1, 5, and 10%, respectively (two-tailed).

2. T-values are firm-level clustered.

3. Refer to Section III for the variable definition.

이러한 <표 6>의 결과는 <표 5>에서 보고한 감사인 규모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산업전문가 사이의 교체시에는 고객기업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나 비전문가 사이의 교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비교가능성이 비전문가 사이의 교체 표본에서 유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추가-이익 자료를 통해 추정된 경우에는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대체로 모든 경우에서 감소하며 산업전문가 사이의 교체에서만 감소하지 않는다. 즉,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전문가감사인으로서의 교체는 비교가능성의 하락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주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감사인 교체연도의 낮은 비교가능성과 이를 유도하는 저품질 감사인 사이의 교체를 실증하고 있다.

3. 다른 비교가능성 측정치를 이용한 추가분석

추가분석에서는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액 모형 및 추가-이익 모형 각각에 대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추정된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이용한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Table 7. Using Other Proxie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Panel A. Testing H1						
Independent Variable	(1) Dep=COMP_PMDA			(2) Dep=COMP_LAGRET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INITIAL</i>	-0.001	**	-2.54	-0.002	***	-6.93
<i>Intercept & Controls</i>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411			0.2601
N of obs.			13,268			10,353
Panel B. Testing H2						
Independent Variable	(1) Dep=COMP_PMDA			(2) Dep=COMP_LAGRET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BIG_to_BIG</i>	0.000		0.35	-0.001		-1.36
<i>NBIG_to_BIG</i>	-0.003	**	-2.04	-0.003	***	-3.45
<i>BIG_to_NBIG</i>	-0.000		-0.01	-0.003	***	-4.74
<i>NBIG_to_NBIG</i>	-0.003	***	-3.05	-0.003	***	-5.35
<i>Intercept & Controls</i>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419			0.2613
N of obs.			13,268			10,353
Panel C. Testing H3						
Independent Variable	(1) Dep=COMP_PMDA			(2) Dep=COMP_LAGRET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ISA_to_ISA</i>	0.002		0.11	0.000		0.41
<i>NISA_to_ISA</i>	-0.001		-0.83	-0.002	**	-2.43
<i>ISA_to_NISA</i>	-0.000		-0.08	-0.002	***	-2.94
<i>NISA_to_NISA</i>	-0.002	***	-2.82	-0.003	***	-6.48
<i>Intercept & Controls</i>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411			0.2606
N of obs.			13,268			10,353

Notes: 1. ***, **, and * show significance levels at 1, 5, and 10%, respectively (two-tailed).
 2. T-values are firm-level clustered.
 3. Refer to Section III for the variable definition.
 4. Controls are included but omitted for brevity.

우선, 전술한 주요 결과에서는 발생액 간 차이를 이용하여 비교가능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발생액 중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그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선행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추정한다(Dechow et al., 1995). 또한 재량적 발생액이 극단적 성과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성과를 통제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제시한다(Kothari et al., 2005). 본 연구도 이를 원용하여 산업-연도별로 총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5분위수로 나누어 각 분위수의 재량적 발생액 평균값을 차감한 값을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추정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MDA)을 전술한 방식과 동일하게 Francis et al. (2014)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연도별 비교가능성 추정치(COMP_PMDA)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가가 이익보다 먼저 경제적 사건을 반영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식(2)에 전기주가수익률을 추가로 포함하여 De Franco et al. (2011) 방식으로 추정된 비교가능성 추정치(COMP_LAGRET)를 이용한다. 이상의 추가적인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이용한 조사결과는 <표 7>에 제시한다.

<표 7>의 모형 (1)은 COMP_PMDA를, 모형 (2)는 COMP_LAGRET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패널 A에서 INITIAL 변수는 두 모형에서 계수값이 각각 -0.001, -0.002로 5% 이상의 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즉,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은 비교체연도에 비해 더 낮다. 패널 B, C는 각각 가설 2와 3을 검증한 것이다. 전술한 결과에서와 유사하게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Big4 감사인 간 교체 및 산업전문감사인 간 교체에서는 비교가능성의 수준이 비교체연도에 비해 더 낮지 않다. 그러나 non-Big4 사이의 교체나 비전문가 사이의 교체에서는 두 모형에서 모두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이상의 결과는 전술한 가설 검증 결과와 일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외부감사인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두 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Francis et al., 2014; Li et al., 2017).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감사인의 규모나 산업전문성 자체가 기업의 발생액(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확장하여 외부감사인 교체에 초점을 두고 기업 간 발생액 차이로 측정된 비교가능성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가와 이익을 이용하여 추정된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비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에 비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가능성 추정치와 무관하게 일관되었다. 이는 감사인 교체가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비교가능성 수준이 어떠한 감사인 교체의 경우에서 유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사인 규모 및 산업전문성의 변경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non-Big4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 교체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Big4 감사인 사이의 교체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산업전문성 조사에서는 비전문감사인 간 교체에서 이와 같은 교체연도의 낮은 비교가능성이 유도되었으며, 산업전문감사인 간 교체에서는 비교가능성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비교가능성 대응치를 이용한 결과에서 모두 일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인 교체연도에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며, 전임감사인과 신규 선임 감사인 간 규모와 산업전문성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이용하여 감사인 교체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감사인 교체에 있어 비교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아직까지 많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학술적 공헌점이 있다. 둘째, 감사인 교체연도의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감사인 교체가 점차 빈번해지도록 유도하는 최근의 감사인 선임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6년 연속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빈번한 감사인 교체 상황에서 고객기업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향후 필요함을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고품질 감사인 사이의 교체는 비교가능성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과 기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앞으로 감사인 교체

관련 제도의 개선에 있어 본 연구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모형에서 생략변수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비교가능성의 측정치는 보다 세밀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즉, 기업 간 단순 발생액 차이보다 정제된 측정치를 통해 후속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재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연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보고하는 실증결과는 초도감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속감사기간의 증가에 따른 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는 후속연구가 탐색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2019.10.15.
- 나종길, 최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28(1), 1-31.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9.4.19.
- 최승욱 (2017),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이익이 더 지속적인가?", *회계학연구*, 42(1), 63-96.
- 최승욱 (2018), "저품질의 회계이익이 비교가능할 수 있는가? 재량적발생액과 비교가능성의 관계 분석",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60(2), 181-220.
- Balsam, S., J. Krishnan and J. S. Yang (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2), 71-97.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 3-37.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1-24.
- Chen, C. Y., C. J. Lin and Y. C. Lin (2008), "Audit partner tenure, audit firm tenu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Does long auditor tenure impair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2), 415-445.
- Davidson III, W. N., P. Jiraporn and P. DaDalt (2006), "Causes and consequences of audit shopping: an analysis of auditor opinions,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 changes", *Quarterly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45(1/2), 69-87.
- De Franco, G., S. P. Kothari and R. Verdi (2011),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9(4), 895-931.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183-199.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193-225.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1), 35-67.
- Dhaliwal, D. J. Schatzberg and M. Trombley (1993), "An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Preceding Auditor Chang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2(2), 22-38.
- Dye, R. (1991), "Informationally Motivated Auditor Replac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4), 347-374.
- Francis, J. R. K. Reichelt and D. Wang (2005), "The Pricing of National and City-Specific Reputations for Industry Expertise in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80(1), 113-136.
- Francis, J., L., Pinnuck and O. Watanabe (2014), "Auditor Style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89(2), 605-633.
- Kim, J. B., L. Li, L. Y. Lu. and Y. Yu (2016),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Expected Crash Risk",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1(2-3), 294-312.

- Kim, S., Kraft, P. and S. Ryan (2013),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credit risk",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8(3), 783-823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163-197.
- Krishnan, G. (2003), "Does Big 6 auditor industry expertise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17(Supplement): 1-16.
- Lennox, C. (1999), "Are Large Auditors More Accurate Than Small Audi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9(3), 217-227.
- Li, L., B. Qi and J. Zhang (2017), "The Effect of Engagement Auditors 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Working paper*, SSRN 3047631
- O'Keefe, T. B., R. D. King and K. M. Gaver (1994), "Audit Fees,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ompliance with GAAS Reporting Standard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3(2), 41-55.
- Romanus, R. N., J. J. Maher and D. M. Fleming (2008),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uditor changes, and accounting restatements", *Accounting Horizons*, 22(4), 389-413.
- Schwartz, K. B. and K. Menon (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60(3), 248-261.
- Sohn, B. C. (2016), "The effect of accounting comparability on the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5(5), 513-539.